4월 28일 월요일

Work banishes those three great evils: boredom, vice, and poverty.

1. The boy wasn’t hurt, but he shed crocodile tears to get attention.

2. People sometimes weep crocodile tears to look kind.

3. The woman showed crocodile tears in public, but she wasn’t sad at all.

4. I don’t just shed crocodile tears to take cheap political advantage.

TED:

Cameron Herold - Let's raise kids to be entrepreneurs

http://www.ted.com/…/cameron\_herold\_let\_s\_raise\_…/transcript

(0:12 ~ 0:56)

I would be willing to bet that I'm the dumbest guy in the room

because I couldn't get through school.

I struggled with school.

But what I knew at a very early age was

that I loved money and I loved business

and I loved this entrepreneurial thing,

and I was raised to be an entrepreneur,

and what I've been really passionate about ever since –

and I've never spoken about this ever, until now –

so this is the first time anyone's ever heard it,

except my wife three days ago,

because she said,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I told her -- is that.. I think we miss an opportunity

to find these kids who have the entrepreneurial traits,

and to groom them or show them

that being an entrepreneur is actually a cool thing.

It's not something that is a bad thing and is vilified,

which is what happens in a lot of society.

일을 하면 권태, 비행, 빈곤 이 세 가지 악이 사라진다.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 '마음에도 없는 위선적인 눈물'

아이는 다치지 않았지만 관심을 받으려고 거짓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어쩔 때 착해 보이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린다.

그 여자는 대중 앞에서 위선의 눈물을 흘렸지만 속으로는 전혀 슬프지 않았다.

나는 작은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 거짓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캐머론 해럴드 – 아이들을 기업가로 키웁시다.

저는 이 방에서 제가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학교에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어릴때 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제가 돈과 사업을 좋아하고

또한 기업가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가가 되도록 길러졌죠.

그리고 항상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느껴왔던 것이죠

지금까지 한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제 얘기를 들은 아내를 제외하고요.

왜냐면 그녀가 “무슨 얘기 할거냐”고 물어봐서

말을 해줬죠. 우리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기업가 자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찾고

키워주고 보여주고,

기업가가 되는 것은 굉장히 멋진 일이란 걸

기업가라는 것은 나쁘거나 비난 받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회들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

That which we obtain too easily, we esteem too lightly.

\_

1. It’s every woman’s dream to have hourglass figure.

2. She got her confidence back after working out constantly, and now she has hourglass figure.

3. Ask any guy what his ideal girl would be and he will say hourglass figure.

4. In order to have hourglass figure, you have to do both cardio and weight lifting.

\_

TED:

Cameron Herold - Let's raise kids to be entrepreneurs

http://www.ted.com/…/cameron\_herold\_let\_s\_raise\_…/transcript

(2:26~2:52 )

I think we have an obligation as parents and a society

to start teaching our kids to fish

instead of giving them the fish –

the old parable: 옛 말에,

If you give a man a fish, you feed him for a day.

If you teach a man to fish, you feed him for a lifetime."

If we can teach our kids to become entrepreneurial –

the ones that show those traits to be –

like we teach the ones who have science gifts to go on in science,

what if we saw the ones who had entrepreneurial traits

and taught them to be entrepreneurs?

We could actually have all these kids spreading businesses

instead of waiting for government handouts.

노력 없이 얻은 소중한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모래시계같은 몸매를 hourglass figure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라인 몸매를 뜻하죠.

S라인 몸매는 모든 여성의 꿈이다.

그녀는 꾸준히 운동을 해서 자신감을 찾고 S라인도 가졌다.

어떤 남자에게나 이상형을 물어보면 모두 몸매 좋은 여자라고 할 것이다.

볼륨감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선 유산소 뿐 아니라 근력 운동도 해야 한다.

• 키워드: 개미허리의 S라인 몸매 - hourglass figure, hourglass shape

캐머론 해럴드 – 아이들을 기업가로 키웁시다.

저는 부모와 사회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할 의무말입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주기 보다는 말이죠.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고기를 주면, 하루를 먹고 살게 해준 것이지만

만약 당신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면,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기업가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런 사업가 기질이 보이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과학 분야로 나아갈 만큼 과학적 기질을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업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기업가가 되게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이 사업을 번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 보단 말이죠

4월 30일 수요일

We never reflect how pleasant it is to ask for nothing.

1. Schadenfreude is an ugly sentiment.

2. I think people have Schadenfreude about her.

3. Men tend to feel more Schadenfreude about other people’s misfortune than women.

4. Schadenfreude is a German term for shameful joy. Taking pleasure in the suffering of others.

\_

TED:

Cameron Herold - Let's raise kids to be entrepreneurs

http://www.ted.com/…/cameron\_herold\_let\_s\_raise\_…/transcript

(13:29 ~ 14:18)

Allowances teach kids the wrong habits.

Allowances, by nature, are teaching kids to think about a job.

An entrepreneur doesn't expect a regular paycheck.

Allowance is breeding kids at a young age to expect a regular paycheck.

That's wrong, for me, if you want to raise entrepreneurs.

What I do with my kids now -- I've got two, nine and seven –

is I teach them to walk around the house and the yard,

looking for stuff that needs to get done.

Come to me and tell me what it is.

Or I'll come to them and say, "Here's what I need done."

And then you know what we do? We negotiate.

They go around looking for what it is.

But then we negotiate on what they're going to get paid.

And then they don't have a regular check,

but they have more opportunities to find more stuff,

and they learn the skill of negotiating,

and they learn the skill of finding opportunities as well.

부탁할 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생각해본 사람은 거의 없다.

남의 불행에서 쾌감을 느끼는 마음(pleasure taken from someone else's misfortune)을 독일어에서 빌려온 Schadenfreude라고 합니다.

남의 불행에 대해 갖는 쾌감은 추한 감정이다.

내 생각엔 사람들이 그녀가 불행할 때 좋아하는 것 같아.

남자들은 여자들 보다 남에 불행에 대해 더 쾌감을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Schadenfreude는 독일에서 온 단어로 부끄러운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남의 불행을 기쁨으로 생각 하는 거죠.

캐머론 해럴드 – 아이들을 기업가로 키웁시다.

용돈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들입니다.

용돈은 본질적으로 아이들이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게 가르칩니다.

기업가는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용돈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정기적인 수입을 기대하게 기릅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만약 아이가 기업가가 되게 키우고 싶다면 말이죠.

저는 제 아이들을 -- 9살 그리고 7살 짜리인데요 --

집과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해야할 일을 찾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어떤 일들인지 말하게 합니다.

또는 제가 아이들에게 가서 "처리 됐으면 하는 일들이 있단다."하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나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아세요? 협상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찾아 다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무엇을 받을지에 대해 협상합니다.

정기적으로 돈을 받지는 못하지만,

더 많은 일들을 찾을 기회를 갖게 되고,

협상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는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지요.

5월 1일 목요일

One may have good eyes and yet see nothing.

/recapitulation

1. I watched Prison Break recap during the break.

2. If you missed the original show recaps are available on both facebook and youtube.

3. The web site gives brief recaps of the hottest news topics.

TED:

Cameron Herold - Let's raise kids to be entrepreneurs

http://www.ted.com/…/cameron\_herold\_let\_s\_raise\_…/transcript

(14:42 ~15:37)

Don't read them bedtime stories every night.

Maybe four nights out of the week read them bedtime stories

and three nights of the week have them tell stories.

Why don't you sit down with kids and give them four items,

a red shirt, a blue tie, a kangaroo and a laptop,

and have them tell a story about those four things?

My kids do that all the time.

It teaches them to sell; it teaches them creativity;

it teaches them to think on their feet.

Just do that kind of stuff and have fun with it.

Get kids to stand up in front of groups and talk,

even if it's just stand up in front of their friends

and do plays and have speeches.

Those are entrepreneurial traits that you want to be nurturing.

Show the kids what bad customers or bad employees look like.

Show them the grumpy employees.

When you see grumpy customer service, point that out to them.

Say, "By the way, that guy's a crappy employee."

And say, "These ones are good ones." (Laughter)

If you go into a restaurant and you have bad customer service,

show them what bad customer service looks like. (Laughter)

We have all these lessons in front of us,

but we don't take those opportunities;

we teach kids to go get a tutor.

시력이 좋은데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흔히 페이스북이나 유투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는 방송분- recap

오늘 쉬는 시간에 프리즌 브레이크 “다시 보기”를 봤어요.

본방사수를 놓쳤다면 페이스북이나 유투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그 웹사이트에서는 가장 주요한 뉴스거리를 모은 간단한 인터넷 동영상들을 제공한다.

캐머론 해럴드 – 아이들을 기업가로 키웁시다.

아이들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읽어주지 마세요.

일주일 중 4일 정도는 이야기를 읽어주고

3일 정도는 아이들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얘기하게 하세요.

아이들에게 네 가지 소개를 던져주고,

빨간 셔트, 파란 타이, 캥거루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 말이죠,

그리고 그 네 가지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제 아이들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이 설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줍니다; 창의력을 길러줍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런 일들을 즐겁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그룹 앞에 서서 얘기하게 하세요.

그게 단지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하는 것이어도 말이죠.

연극을 하던지 또는 연설을 하게 하세요.

그러한 것들이 키워야할 기업가적인 자질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손님이나 나쁜 직원들이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퉁명스런 직원들을 보여주세요.

불친절한 서비스를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저 사람은 거지같은 직원이야."

그리고 말하세요, "이 사람들은 좋은 직원들이고."

만약 당신이 레스토랑을 갔는데, 그 레스토랑의 서비스가 형편이 없었다면

아이들에게 형편 없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보여주세요.

우리 앞에는 이러한 교육들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회들을 다 버립니다;

우린 아이들에게 개인교습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5월 2일 금요일

A beauty is a woman you notice. A charmer is one who notices you.

\_

1. Raising five children had taken its toll on their mother.

2. The tornado has taken a toll on the village.

3. Illness had taken a heavy toll on her.

4. Drug abuse takes quite a toll on the lives of people.

1. The annual death toll on the roads is about 5000.

\_

TED:

Cameron Herold - Let's raise kids to be entrepreneurs

http://www.ted.com/…/cameron\_herold\_let\_s\_raise\_…/transcript

(15:37 ~ 16:14)

Imagine if you actually took all the kids' junk that's in the house right now,

all the toys that they've outgrown two years ago

and said, "Why don't we start selling some of this on Craigslist and Kijiji?"

And they can actually sell it and learn how to find scammers

when they get email offers come in.

They can come into your account or a sub account or whatever.

But teach them how to fix the price, guess the price, pull up the photos.

Teach them how to do that kind of stuff and make money.

Then the money they get, 50 percent goes in their house account,

50 percent goes in their toy account.

My kids love this stuff.

Some of the entrepreneurial traits that you've got to nurture in kids:

attainment, tenacity, leadership, introspection, interdependence, values.

All these traits you can find in young kids, and you can help nurture them.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을 바라보지만, 매력적인 사람은 당신을 봐주는 사람이다.

어떤 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할 경우, take a[its] toll on someone[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5명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의 모친을 힘들게 만들었다

회오리 바람은 그 마을에 큰 피해를 줬다.

병이 그녀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약물남용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약 5천 명에 이른다.

캐머론 해럴드 – 아이들을 기업가로 키웁시다.

상상해보세요. 만약의 당신이 집에 있는 아이들의 잡동사니들,

아이들이 이미 2년 전부터 갖고 놀게 되지 않은 장난감들을 가져다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Craigslist와 Kijiji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 마켓 사이트들)에다 올려서 팔아보면 어떻겠니?"라고 얘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실제로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어떻게 사기꾼들을 구분해내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사겠다는 이메일들을 받았을 때

그것들은 계좌 또는 보조 계좌 뭐 그런 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정하고, 가격을 예측하고, 사진들을 올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돈을 버는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버는 돈의 50%는 집 계좌로 넣고,

나머지 50%는 인형 계좌로 넣습니다.

제 아이들은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할 기업가적인 자질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성취력, 끈기, 리더십, 자기성찰, 상호협동, 가치.

이러한 자질들은 모두 아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기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5월 5일 월요일

The soul is healed by being with children.

1. There is a myth that a morning draught will help cure a hangover.

2. My coworkers used to go out drink morning draught in order to feel better.

3. It’s ok to have morning drink when you are on a vacation.

4. Morning drink can make you have worse headache in the afternoon.

5. Instead of having a morning drink, I recommend you to have a proper breakfast.

해장술 - morning draught, morning drink 숙취 - a hangover

\_

TED:

Susan Cain – The Power of Introverts

http://www.ted.com/talks/susan\_cain\_the\_power\_of\_introverts

(2:30~ 3:17)

Now, I tell you this story about summer camp.

I could have told you 50 others just like it –

all the times that I got the message

that somehow my quiet and introverted style of being

was not necessarily the right way to go,

that I should be trying to pass as more of an extrovert.

And I always sensed deep down that this was wrong

and that introverts were pretty excellent just as they were.

But for years I denied this intuition,

and so I became a Wall Street lawyer, of all things,

instead of the writer that I had always longed to be –

partly because I needed to prove to myself that I could be bold and assertive too.

And I was always going off to crowded bars

when I really would have preferred to just have a nice dinner with friends.

And I made these self-negating choices so reflexively,

that I wasn't even aware that I was making them.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영혼이 치유된다.

해장술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morning draught 또는 morning drink라고 합니다.

해장술이 숙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있다.

나와 동료들은 힘을 내기 위해 해장술을 마시곤 했다.

휴가 기간엔 아침부터 술을 마셔도 괜찮다.

해장술은 오후에 더 심한 두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해장술 대신 제대로 된 아침식사를 하길 권한다.

수잔 케인 – 내성적인 사람의 힘

제가 여름 캠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50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들은 이야기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고,

그때마다 저는 더 외향적인것처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내성적인면은 그 자체로 아주 좋은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이런 저의 직관을 거부했죠,

그래서 저는 월스트리트의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래왔던 작가의 길을 가는대신 –

제가 용감하고 적극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이 많은 술집으로 가곤 했습니다.

원래는 친구들과 근사한 저녁을 먹고 싶었는데도요.

그리고 아주 반사적으로 자기 무력화하는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그러고 있다는 것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The unfortunate thing about this world is that the good habits are much easier to give up than the bad one.

돼지우리' pigsty

1. She doesn’t seem to care about the pigsty she has made.

2. He had to stay in a staff room at his workplace. It looked like a pigsty.

3. How do you get a messy person to become a neat and organized person?

1. Anna is such a neat freak! She cleans her house every day.

\_

TED:

Susan Cain – The Power of Introverts

http://www.ted.com/talks/susan\_cain\_the\_power\_of\_introverts

(3:18 ~ 4:03)

Now this is what many introverts do,

and it's our loss for sure,

but it is also our colleagues' loss and our communities' loss.

And at the risk of sounding grandiose, it is the world's loss.

Because when it comes to creativity and to leadership,

we need introverts doing what they do best.

A third to a half of the population are introverts -- a third to a half.

So that's one out of every two or three people you know.

So even if you're an extrovert yourself,

I'm talking about your coworkers and your spouses and your children

and the person sitting next to you right now –

all of them subject to this bias that is pretty deep and real in our society.

We all internalize it from a very early age

without even having a language for what we're doing.

사람들이 나쁜 습관보다 좋은 습관을 일찍 포기하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활이 몸에 밴 사람을 untidy person, messy person 또는 slob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가 만들어 놓은 돼지우리 같은 환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직장에 있는 직원 휴게실에서 머물러야 했는데, 그 방은 돼지우리 같았다.

더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을 깔끔하고 정돈 잘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결벽증에 가까운 이런 사람을 neat freak이라고 부릅니다.

질은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쟁이야! 그녀는 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해.

수잔 케인 – 내성적인 사람의 힘

이런 것들이 바로 많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우리에게 손해이고,

주위 동료들이나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손해이기도 합니다.

과장을 좀 하자면, 전세계적으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성과 리더쉽에 있어서,

우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내성적인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인구의 1/3에서 반 정도는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 1/3이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두, 세명중 한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외향적일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동료들, 배우자,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겁니다. --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편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상, 태도 등을) 내면화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말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5월 7일 수요일

Never tell people how to do things. Tell them what to do and they will surprise you with their ingenuity.

1. Hey, it’s time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Don’t go around fool yourself.

2. I hope that our manager wakes up and smells the coffee.

3. It is time for government to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4. He woke up and smelled the coffee after he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예문] One important consideration when selecting a coffee table book is the content.

TED:

Susan Cain – The Power of Introverts

(4:03~ 4:52)

Now to see the bias clearly

you need to understand what introversion is.

It's different from being shy.

Shyness is about fear of social judgment.

Introversion is more about, how do you respond to stimulation,

including social stimulation.

So extroverts really crave large amounts of stimulation,

whereas introverts feel at their most alive

and their most switched-on

and their most capable

when they're in quieter, more low-key environments.

Not all the time -- these things aren't absolute – but a lot of the time.

So the key then to maximizing our talents

is for us all to put ourselves in the zone of stimulation that is right for us.

But now here's where the bias comes in.

Our most important institutions,

our schools and our workplaces,

they are designed mostly for extroverts

and for extroverts' need for lots of stimulation.

사람들에게 일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 말라. 대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면 그들의 독창력을 키울 수 있다.

영어 표현에 아침 커피 향과 관련해 'wake up and smell the coff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멍하게 집중을 안 하는 사람이나 제정신을 차려야 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이봐, 이젠 정신 차릴 때도 됐어. 어리석은 행동 그만하게.

난 우리 부장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정부가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가 됐습니다.

그는 경제 위기를 경험한 후 똑바로 정신을 차렸다.

커피와 관련된 또 다른 표현 하나 더 알아 볼까요? 'coffee table boo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션 잡지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할 것은 내용이다.

수잔 케인 – 내성적인 사람의 힘

이런 편향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내성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끄러움은 사회적인 판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성적이라는 것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자극을 포함해서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자극들을 갈망합니다,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가장 생동감을 느낍니다.

관심 있어하고,

그리고 능력이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조용하고 절제된 환경에 있을 때

항상은 아니지만 -- 절대적이지는 않죠. -- 대부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재능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내성적인 사람들에게 맞은 자극적인 환경에 자신을 보내보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런 곳에서 편향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인

학교와 직장은

대부분 외향적인 사람들이나 외향적인 사람들의 많은 자극에 대한 필요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5월 8일 목요일

Boredom is the feeling that everything is a waste of time.

1. Chess is a war of nerves.

2. The war of nerves between the two people seems likely to continue.

3. This situation has become a war of nerves with neither side willing to back off.

White war

1. The competitors started a white war before the game started.

2. Samsung is trying to have a white war with Apple by showing their product has better quality too obviously through commercial.

TED:

Susan Cain – The Power of Introverts

http://www.ted.com/talks/susan\_cain\_the\_power\_of\_introverts

(6:47~7:21)

Now in fact, 사실,

some of our transformative leaders in history have been introverts.

I'll give you some examples.

Eleanor Roosevelt, Rosa Parks, Gandhi –

all these people described themselves

as quiet and soft-spoken and even shy.

And they all took the spotlight,

even though every bone in their bodies was telling them not to.

And this turns out to have a special power all its own,

because people could feel that these leaders were at the helm,

not because they enjoyed directing others

and not out of the pleasure of being looked at;

they were there because they had no choice,

because they were driven to do what they thought was right.,

권태는 모든 것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감정이다.

신경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war[battle] of nerves 또는 white war라고 한다.

체스는 신경전이다.

그 두사람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 같다.

이 상황은 양측이 물러서지 않는 신경전이 되고 있다.

무혈 전쟁

게임이 시작 되기도 전에 두 경쟁자들은 신경전을 벌였다.

삼성은 자사의 제품이 애플보다 낫다는 것을 광고에서 명백하게 들어냄으로써 애플과의 신경전을 벌였다.

수잔 케인 – 내성적인 사람의 힘

역사에서 몇몇 개혁적인 지도자들은 내성적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을 예를 들어보죠.

엘레노어 루즈벨트, 로자 팍스, 간디 -

이 모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조용하고 부드럽고 심지어 수줍음을 많이 탄다고

그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집중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몸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었지만,

이건 그만큼 특별한 힘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지도자들이 조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단지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걸 즐기거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서 기쁨을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분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자리에 있었던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신념이 강했기 때문에

5월 9일 금요일

That is the best – to laugh with someone because you think the same things are funny.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상황을 영어로 표현하면 make or break라고 할 수 있다.

1. This movie will make or break him as a director.

2. The quality of food will make or break this restaurant’s success.

3. Communication can make or break a company. Let’s face it.

4. The approaching local elections will be a make-or-break situation for the party.

TED:

Susan Cain – The Power of Introverts

http://www.ted.com/talks/susan\_cain\_the\_power\_of\_introverts

(12:00~12:43)

But then we hit the 20th century

and we entered a new culture that historians call the culture of personality.

What happened is we had evolved an agricultural economy to a world of big business.

And so suddenly people are moving from small towns to the cities.

And instead of working alongside people they've known all their lives,

now they are having to prove themselves in a crowd of strangers.

So, quite understandably,

qualities like magnetism and charisma suddenly come to seem really important.

And sure enough, the self-help books change to meet these new needs

and they start to have names like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And they feature as their role models really great salesmen.

So that's the world we're living in today.

That's our cultural inheritance.

같은 이야기를 듣고서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이 영화가 감독으로서의 그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음식의 질이 이 레스토랑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의사소통은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직시해야 해요.

다가오는 지방 선거는 그 당의 운명을 결정짓는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다.

수잔 케인 – 내성적인 사람의 힘

하지만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보내고

역사학자들이 개성의 문화라고 부르는 새로운 문화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업경제 시대에서 발전하여 대기업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작은 마을에서 도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알고 지내던 사람과 일하지 않고

낯선 사람들 틈에서 자신을 증명하면서 살아야합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매력과 카리스마와 같은 자질이 갑작스럽게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세술 책들은 이런 새로운 필요성을 만족하기 위해 바뀌고 있고,

처세술과 인간관계론" 과 같은 제목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롤모델로 정말 위대한 세일즈맨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우리 문화 유산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you can make more friends with your ears than your mouth

1. The central bank urged banks to fall in line.

2. Everyone in this company has to fall in line with every regulation.

1. You can make as much noise as you want, but I draw the line at fighting.

2. It’s necessary to know when to draw the line in any kinds of relationship.

[예문 1] Players had crossed the line by attacking fans.

TED: Chip Conley- Measuring what makes life worthwhile

http://www.ted.com/…/chip\_conley\_measuring\_what…/transcript…

(0:57~1:56)

With the youthful idealism of a 26-year-old, in 1987,

I started my company and I called it Joie de Vivre,

a very impractical name,

because I actually was looking to create joy of life.

And this first hotel that I bought, motel,

was a pay-by-the-hour,

no-tell motel in the inner-city of San Francisco.

As I spent time with Vivian,

I saw that she had sort of a joie de vivre in how she did her work.

It made me question and curious:

How could someone actually find joy in cleaning toilets for a living?

So I spent time with Vivian, and I saw that she didn't find joy in cleaning toilets.

Her job, her goal and her calling

was not to become the world's greatest toilet scrubber.

What counts for Vivian was the emotional connection she created

with her fellow employees and our guests.

And what gave her inspiration and meaning

was the fact that she was taking care of people who were far away from home.

Because Vivian knew what it was like to be far away from home.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수직 관계 조직의 구성원이 될 경우에는 그 회사나 조직의 규칙이나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회사에는 사규가 있고, 사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하관계와 조직의 운영 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 그 규칙을 따른다'의 영어 표현은 fall in[into] line이라고 합니다.

중앙 은행은 은행들이 규정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회사 규칙에 따라야 한다.

수직구조의 회사나 조직에는 뚜렷한 상하관계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직원들은 이 기본적인 규칙을 가끔 잊어버리는 일이 있지만, 상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 대로의 '선'을 두고 직원들을 관리하기도 하는데요. '선을 긋다'의 영어 표현은 draw the line.

원하는 대로 시끄럽게 해도 되지만, 난 싸움에 선을 정해 두고 있어.

사람들간에 관계에 있어선 언제 선을 그어야 할지 알아야 한다.

몇 번의 비판을 통해 뜻을 관철한 직원은 상사에게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면 쟁취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이는 큰 오산입니다. 기분에 따라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가 관대한 편이라면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사가 그어 놓은 선을 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조직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선을 넘어가다'는 cross the line.

선수들이 관중들을 공격하면서 선을 넘어 섰다.

ㆍ구성원으로서 규칙을 따르다 - fall in[into] line

ㆍ(지켜야 할) 선을 긋다 - draw the line

ㆍ선을 넘다, 도를 넘다 - cross the line

ㆍ누군가에게 엄격한 조치를 취하다 - take a hard line with someone

노래: Cold Play - In My Place

칩 콘리 - 가치 있는 삶의 계산 방식

호텔을 인수한 `87년, 26살이었던 저는

젊은 이상주의로 호텔 이름을 Joie de Vivre(인생의 기쁨-의 불어식 표현)라고 지었지요.

아주 비실용적인 이름이지만,

저는 정말로 삶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호텔, 모텔은,

시간제로 지불하는

샌프란시스코 도심에 위치한 러브호텔이었어요.

비바안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그녀가 일하는 가운데 삶의 기쁨을 찾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궁금했어요,

생계를 위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어떻게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비비안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보게 됐죠 그녀의 기쁨은 화장실 청소에서 오는 게 아니란 걸요.

그녀의 일, 목표 그리고 소명은

세계 최고의 화장실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비비안이 가치 있게 여기고 셈하는 것은 그녀가 만들어낸 정서적 교류였어요.

동료, 그리고 고객들과의

그리고 그녀 삶에 의미와 영감을 주는 것은

그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돌봐준다는 사실이었죠.

비비안은 고향을 떠난 심정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5월 13일 화요일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예문 1] Beer goggles really do make people appear more attractive.

[예문 2] He must have the beer goggles on her.

[예문 1] The phrase pink elephant refers hallucinations caused by excessive alcohol intake.

[예문 2] My boyfriend saw pink elephants when he got drunk.

TED: Chip Conley- Measuring what makes life worthwhile

http://www.ted.com/…/chip\_conley\_measuring\_what…/transcript…

(2:54~3:44)

So one particular day when I was feeling a little depressed

and not a lot of joie de vivre,

I ended up in the local bookstore around the corner from our offices.

And I initially ended up in the business section of the bookstore looking for a business solution.

But given my befuddled state of mind,

I ended up in the self-help section very quickly.

That's where I got reacquainted with Abraham Maslow's "hierarchy of needs."

I took one psychology class in college,

and I learned about this guy, Abraham Maslow,

as many of us are familiar with his hierarchy of needs.

But as I sat there for four hours, the full afternoon, reading Maslow,

I recognized something that is true of most leaders.

One of the simplest facts in business

is something that we often neglect,

and that is that we're all human.

Each of us, no matter what our role is in business,

has some hierarchy of needs in the workplace.

당신이 얼마나 남을 배려하는가를 알기 전까진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아는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술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이성이 다 예쁘게 보이거나 멋져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눈을 뿌옇게 만드는 고글을 쓴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것을 beer goggles라고 표현하는데요.술을 마시다가 충동적으로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

술에 취하면 정말 사람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는 (술에 취해) 그녀에게 콩깍지가 씌었다.

분홍 코끼리는 많은 술을 마심으로써 생기는 환각현상을 말한다.

내 남자친구는 술에 취하면 헛것을 봐요.

칩 콘리 - 가치 있는 삶의 계산 방식

그러던 어느 날 침체되어 있던 시기였는데요,

삶의 기쁨을 찾지 못하고

회사 근처에 있는 동네 서점에 들르게 되었어요.

사업장의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야 했기에 비즈니스 섹션에 가장 먼저 다가갔죠.

하지만 저의 혼란스러운 마음은

저 스스로를 자기수양 코너로 재빨리 보내버리더군요.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저는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시절에 심리학 수업을 하나 들었기에

그때 아브라함 매슬로우라는 양반을 알게 됐었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욕구 피라미드"와 함께 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오후 4시간을 그곳에 앉아 매슬로우를 읽었고,

마침내 리더들의 공통적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장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종종 등한시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회사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던 간에

일터에서 자기 고유의 욕구 피라미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5월 14일 수요일

If fate hands you a lemon, try to make lemonade.

1. The shop used free gifts as a bait to attract new customers.

2. To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patronage, we would like to offer you a choice of free gifts.

3. The first 3,500 customers who buy over 50,000 won will get a promotional gift.

4. I want electronic goods with very basic to use, and no bells and whistles.

5. Many consumers are wondering if they really need all the bells and whistles.

TED: Chip Conley- Measuring what makes life worthwhile

http://www.ted.com/…/chip\_conley\_measuring\_what…/transcript…

But as we started asking ourselves

about how we were addressing the higher needs of our employees and our customers,

I realized we had no metrics.

We had nothing that actually could tell us

whether we were actually getting it right.

So we started asking ourselves:

What kind of less obvious metrics could we use

to actually evaluate our employees' sense of meaning,

or our customers' sense of emotional connection with us?

For example, we actually started asking our employees,

do they understand the mission of our company,

and do they feel like they believe in it,

can they actually influence it,

and do they feel that their work actually has an impact on it?

We started asking our customers,

did they feel an emotional connection with us,

in one of seven different kinds of ways.

Miraculously, as we asked these questions

and started giving attention higher up the pyramid,

what we found is we created more loyalty.

Our customer loyalty skyrocketed.

Our employee turnover dropped to one-third of the industry average,

and during that five year dotcom bust, we tripled in size.

“운명이 당신에게 레몬을 쥐어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노력하라”

사은품 또는 경품에 bells and whistles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사은품을 이야기할 때는 free gift, promotional gift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상점은 새 고객을 끄는 미끼로 무료 선물을 이용했다.

귀하의 지속적인 구독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사은품 한 가지를 선택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3,500분께 사은품을 드립니다.

나는 부가기능이 많은 것 보다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전자 제품을 원한다.

많은 소비자들이 겉만 화려한 사은품들이 과연 정말 필요한지 의아해 한다.

칩 콘리 - 가치 있는 삶의 계산 방식

그러나 우리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사의 비전을 종업원, 고객들과 공유할 방법을 찾으려 할수록

우리에겐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부족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에겐 측정할 도구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덜 뻔한”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직원들이 뜻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또는 우리 고객들이 회사와 정서적 교감을 느끼는지?

("임직원과 고객들이 우리 회사와 정서적 교감을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평가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일례로, 임직원들에게는 이런설문을 했습니다.

회사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사명을 신뢰하는지,

자신이 사명에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업무가 회사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물었습니다.

회사와 정서적 교감을 느끼는지를

7가지 설문 방식을 사용하여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고차원적인 욕구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될수록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객 충성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직률은 업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지요.

또한 5년간의 닷컴 버블 붕괴기간에도 우리는 3배 확장됐습니다.

5월 15일 목요일

Life is a journey, not a guided tour.

1. I wanted to make a surprise party, but my sister let the cat out of the bag.

2. He has let the cat out of the bag over the fact that there is a problem in that project.

3. If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that will ruin the fun.

TED: Chip Conley- Measuring what makes life worthwhile

http://www.ted.com/…/chip\_conley\_measuring\_what…/transcript…

(6:04 ~ 6:55)

So I went out and studied a bunch of things,

and I found a survey that showed that 94 percent of business leaders worldwide

believe that the intangibles are important in their business,

things like intellectual property, their corporate culture, their brand loyalty,

and yet, only five percent of those same leaders

actually had a means of measuring the intangibles in their business.

So as leaders, we understand that intangibles are important,

but we don't have a clue how to measure them.

So here's another Einstein quote:

Not everything that can be counted counts,

and not everything that counts can be counted."

I hate to argue with Einstein,

but if that which is most valuable in our life and our business

actually can't be counted or valued,

aren't we going to spend our lives just mired in measuring the mundane?

“인생은 가이드가 안내하는 안전한 투어가 아니라 험한 여행길이다”…

오늘 핫 뜨거운 영어에 알아볼 표현은 바로, 누설되면 안되는 비밀이 새어나갈 경우에 쓸 수 있는 문장입니다. 비밀이 새어나가는 경우에 let the cat out of the bag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나는 깜짝 파티로 하고 싶었는데 우리 언니가 무심코 비밀을 말해버렸다.

그는 그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비밀을 발설했다.

비밀을 알려주면 재미 없지.

ㆍ비밀을 발설하다 - let the cat out of the bag

칩 콘리 - 가치 있는 삶의 계산 방식

그래서 저는 외부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찾아낸 하나의 자료는 전세계 경영자의 94%는

무형의 가치가 경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다는 통계였습니다.

그 가치는 이런 것들이죠, 지적재산, 기업문화 그리고 브랜드가치.

통계를 보면, 그 경영자들 중 5%만이

실제 경영에서 무형의 가치를 측정할 방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볼 때 무형의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그것을 측정할 방법은 짐작조차 못한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들어보죠.

셀 수 있는 모든 것이 세어지는 것은 아니며,

세어지는 모든 것이 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인슈타인과 논쟁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삶과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계산되거나 측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세속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5월 16일 금요일

We need men who can dream of things that never were.

lose face -

1. He refused to admit he made a mistake because he didn't want to lose face.

1. You'll be the one who has egg on your face if it goes wrong.

2. 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his colleagues anymore because he had egg on his face last time they met.

1. Are they involved more interested in saving face than telling the truth?

TED: Chip Conley- Measuring what makes life worthwhile

http://www.ted.com/…/chip\_conley\_measuring\_what…/transcript…

(10:09~11:10)

As I spent my week up in the Himalayas,

I started to imagine what I call an emotional equation.

And it focuses on something I read long ago from a guy named Rabbi Hyman Schachtel.

How many know him? Anybody?

1954, he wrote a book called "The Real Enjoyment of Living,"

and he suggested that happiness is not about having what you want;

instead, it's about wanting what you have.

Or in other words,

I think the Bhutanese believe happiness equals wanting what you have

-- imagine gratitude –

divided by having what you want -- gratification.

The Bhutanese aren't on some aspirational treadmill,

constantly focused on what they don't have.

Their religion, their isolation, their deep respect for their culture

and now the principles of their GNH movement

all have fostered a sense of gratitude about what they do have.

How many of us here, as TEDsters in the audience,

spend more of our time in the bottom half of this equation, in the denominator?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쪽팔리다, 체면을 구기다'

그는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의미로 informal하게 사용하는 have egg on your fac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쪽팔리다'의 의미가 확대되어 '뭔가 바보처럼 저지른 일로 인해 체면을 구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다면 쪽팔릴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그는 지난 번 만남 때 체면을 구겨서 더 이상 동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이와 반대 의미로 save face가 있는데, 이것은 '체면을 살려주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 보다 자신의 체면을 살리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건가요?

칩 콘리 - 가치 있는 삶의 계산 방식

저는 히말라야에서 보낸 일주일간

저는 "감정 방정식" 이라는 것에 대해 상상해 봤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읽은 글과 관련됐는데요 랍비 Hyman Schachtel라는 사람이죠.

아시는 분 계세요? 없나요?

그는 1954년에 "진정한 삶의 향유" 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는 행복이란 원하는 것을 갖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하죠.

달리 말해,

부탄국민들의 믿음도 이와 같을 겁니다. 행복은 당신이 소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

즉 감사하는 마음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나누면 “만족감”이 된다.

(행복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라고 정의)

부탄국민들은 어떤 욕망의 수레바퀴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 말이죠.

그들의 종교, 그리고 고립성, 자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

그리고 GNH 운동의 원칙은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 방정식의 분모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5월 19일 월요일

You cannot do a kindness too soon, for you never know how soon it will be too late.

‘be toast’ - ‘끝장나다, 곤경에 처하다’는 의미

1. You can bring cigarette to school, but if you get caught, you’re toast.

2. If you don’t get here in ten minutes, you’re toast.

3. One mistake and you’re toast.

[예문] I’d like to propose a toast to our dedicated president, Mr Ahn.

Obama highlights climate push with new energy initiatives

By Adam Aigner-Treworgy

http://politicalticker.blogs.cnn.com/…/obama-to-announce-…/…

President Barack Obama announced a series of steps to boost energy efficiency and advance solar priorities in an effort to underscore green-job creation and combat carbon pollution. Appearing at a Wal-Mart store in Mountain View, California, Obama said generating more clean energy and wasting less overall is good for consumers and the economy.

Rising sea levels, drought, more wildfires, more severe storms, those are bad for the economy. So we can't afford to wait. There's no reason why we can't even go further than we are so far, Obama said.

------------------------------------------------------------------

President Barack Obama announced

a series of steps to boost energy efficiency

and advance solar priorities

in an effort to underscore green-job creation

and combat carbon pollution.

Appearing at a Wal-Mart store in Mountain View, California,

Obama said generating more clean energy

and wasting less overall

is good for consumers and the economy.

"Rising sea levels, drought, more wildfires,

more severe storms, those are bad for the economy.

So we can't afford to wait.

There's no reason why we can't even go further than we are so far, Obama said."

http://politicalticker.blogs.cnn.com/2014/05/09/obama-to-announce-new-slate-of-climate-actions/?hpt=po\_c2

친절은 아무리 빨리 베푼다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담배를 피워도 돼. 하지만 걸리면 끝장이야.

10분 안에 안 오면 당신은 끝장이야.

한 번만 실수해도 죽음이야.

‘toast’의 또 다른 의미로 ‘건배, 건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propose a toast’라고 하면 ‘토스트 한 장을 제안하다’가 아니라 ‘건배를 제의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맥을 잘 보고 ‘토스트’인지 ‘건배’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헌신적인 안회장님을 위해 건배를 제안하고 싶어요.

오바마 대통령, 새로운 에너지 계획으로 기후 추진 강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발표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에너지를 강화

녹색 일차리 창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탄소 오염을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에 위치한 월마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다. 청정 에너지를 생성하고

전체적으로 덜 낭비하는 것은

소비자와 경제에 좋은 것이다.

해수면 상승, 가뭄, 더 많은 산불,

더 심한 폭풍,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이미 이만큼 왔는데 더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다 라고 오바마가 말했다.

5월 20일 화요일

What does not destroy me, makes me stronger.

1. I struggled making my kids to eat spinach, because they are picky eater.

2. Children develop picky eating behaviors by modeling their parents eating habits.

3. Ms. Johns has been attending food therapy for her picky eating.

Russia plans to leav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by 2020, official says

By Suzanne Presto, CNN

updated 12:11 AM EDT, Wed May 14, 2014

http://www.cnn.com/2014/05/13/us/russia-international-space-station-plans/?iid=HP\_LN

Russia said it does not plan to use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beyond 2020, casting a shadow on U.S. plans to continue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and extend the life of the orbiting laboratory until at least 2024.

Russian Deputy Prime Minister Dmitry Rogozin told reporters that Russia is looking to redirect its attention to other projects after 2020. His comments come as tensions mount over U.S. sanctions on Russia for its role in the crisis in Ukraine.

Russia said it does not plan to use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beyond

casting a shadow on U.S. plans to continue cooperation with the country

and extend the life of the orbiting laboratory until at least 2024.

Russian Deputy Prime Minister Dmitry Rogozin told reporters

that Russia is looking to redirect its attention to other projects after 2020.

His comments come as tensions mount over U.S. sanctions on Russia

for its role in the crisis in Ukraine.

자신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것이 아닌 이상, 고난을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편식. ‘selective eating’ 또는 ‘picky eating'. 일반적으로 ‘picky eating’을 더 많이 사용하고요, 편식하는 사람은 picky eater 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편식을 해서 시금치를 먹게 하는데 참 어려웠다.

아이들은 부모의 식사 습관을 본보기로 하여 편식 습관이 생기게 된다.

존스 씨는 편식을 치료하기 위해 음식 치료 교실을 다녔다.

편식증- ‘SED(selective eating disorder).

러시아, 2020 년까지 국제 우주 정거장 사용국에서 빠진다

2020, 러시아는 2020년 이후로 국제 우주 정거장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와의 협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적어도 2024년까지 궤도 실험실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러시아 부총리 드미트리 로고진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러시아는 2020년 이후 다른 프로젝트에 관심을 돌릴 것이다.

그의 발언은 미국이 러시아를 처벌하며 갈등이 고조되며 나온 것.

우크라이나 위기로 인한

5월 21일 수요일

Avoid having your ego so close to your position that when your position falls, your ego goes with it.

‘lion’s share’ -

1. The elder brother always took the lion’s share of the food in the family.

2. I will support the lion’s share of your proposals.

3. There are two main partners in the business, but Mr. Tyson owns the lion’s share of equity.

4. Since Mr. Parker owns 70% of the company, he always gets the lion’s share of any profits.

Two big meals may be better than six small ones

http://thechart.blogs.cnn.com/…/two-big-meals-may-be-bett…/…

You've probably heard that eating multiple small meals throughout the day is a good way to stave off hunger and keep your metabolism revved up while trying to lose weight. But a new study could change your diet strategy.

Eating two large meals early and skipping dinner may lead to more weight loss than eating six smaller meals throughout the day, the study suggests.

-----------------------------------

You've probably heard that

eating multiple small meals throughout the day

is a good way to stave off hunger

and keep your metabolism revved up while trying to lose weight.

But a new study could change your diet strategy.

Eating two large meals early and skipping dinner

may lead to more weight loss

than eating six smaller meals throughout the day,

the study suggests.

자신의 자아를 지위에 너무 가까이 두어서, 그 지위가 떨어질 때 자아도 함께 내려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제일 좋고 많은 몫’ 또는 ‘알짜’.

제일 큰 맏형이 가족 중에 가장 큰 몫의 음식을 차지했다.

당신의 제안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에 두 명의 파트너가 있지만 타이슨씨가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파커 씨는 회사 지분의 70%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는 항상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

든든한 두 끼가 여섯 번의 소식보다 낫다

당신은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하루 동안 여러 번 소식을 하는 것이

배고픔을 늦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리고 살 빼는 동안 신진대사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그러나 새로운 연구가 당신의 다이어트 전략을 바꿀 수 있다.

많은 양의 식사를 일찍하고 저녁을 건너 뛰는 것이

살 빼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루 동안 소식 여러 번 하는 것 보다

연구가 제안한다.